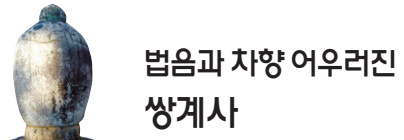


'일심을 근본으로 힘쓰라' 차향기로 전한 가르침



법음과 차향 어우러진 쌍계사

하동 쌍계사라는 절 이름을 들으면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있습니다. 먼저 파릇한 녹차의 새순과 그윽한 차향기가 떠오릅니다. 쌍계사 일원은 우리나라에 녹차가 처음으로 재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영남의 노래 '화개장터'와 더불어 십리 벚꽃길이 떠오릅니다. 더하여 유유히 흐르는 선강강 깊은 물길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봄기운을 느끼기에는 이르지만, 지리산을 돌아 화개장터가 가까워질수록 거기에는 이미 봄이 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벚꽃들이 어린 눈을 뜨고 따사로운 봄바람에 하얗게 흔들리고 차밭에서는 새싹들이 그야말로 참새 햇바닥만치 돋아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감도 없이 하품처럼 늘어뜨린 기대는 쉼 없는 화개장터와 물이 마른 계곡을 지나는 동안 차가운 바람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과 겨울입니다. 먼 곳에서 미리 전령을 보냈을 테지만 그처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들뜬 마음으로 쌍계사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웃 산의 절도 옥천(玉泉)이라 일컬었으므로 이름이 겹쳐져서 백성들의 귀를 미혹하게 할까 염려하였다. 같은 이름을 버리고 달리하려 한 즉, 마땅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좇아야 하는데 그 절이 자라난 곳을 살펴보게 하니 동구(洞口)에 두 시냇물이 마주 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제액(題額)을 내려 쌍계사라고 하였다."

쌍계사 대웅전 아래 홀로 서 있는 '진감선사대공영탑비문(眞鑑禪師大空靈塔碑文)'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깊은 학문과 결출한 문장으로 따를 자가 없는 고운 최치원이 찬했습니다. 쌍계사가 '옥천사'라는 이름으로 장건된 것은 진감선사(774-850) 이전의 일이지만, 중국으로 건너가 조계선종의 적손이 되어 귀국한 진감선사에 이르러 쌍계사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정강왕이 절 이름을 직접 지어 준 것은 진감선사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



진감선사 대공영탑의 이수 중앙에 선명한 전액

였고 이후 대통을 이은 왕들도 쌍계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진감선사의 덕화가 신라의 하늘을 덮을만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웃기를 머미고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 팔영루를 거쳐 오릅니다. 경사진 길이지만 각 문들을 지나는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팔영루 오른쪽 옆을 돌아다니 별천지인 것처럼 절의 중심공간이 드러납니다. 높다랗게 우러러 보이는 대웅전은 건물자체가 가부좌로 앉은 부처님 같습니다. 법패와 선 그리고 차 재배의 발원 도량인 쌍계사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뚝한 역사입니다.

앞면이 보이는 진감선사대공영탑비(국보 제47호)를 먼저 살펴봅니다. 세월의 무게와 전란의 광기를 이기지 못해 금이 가고 탄환 자국이 선명한 몸돌이 철제 보호 장치에 의존해 서 있습니다. 887년에 세웠으니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125년을 그곳에서 있었습니. 귀부도 몸돌도 이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 거친 시간을 버려 온 것만으로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감선사대공영탑' 최치원 사산비의 하나 법패와 차 재배 발원지 '우뚝한 역사'

눈에 보이는 탑비의 존재감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가 담고 있는 문장은 최치원의 사산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문이 진감선사와 그의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 신라 말의 여러 정황을 전하는 확실한 기사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쌍계사 홈페이지에서는 이 탑의 제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의 높이는 3m 63cm, 탑신의 높이는 2m 2cm, 폭은 1m, 귀부와 이수는 화강암이고 비신은 흑대리 석이다. 현재 비신의 우측 상부에 크게 흘락된 부분이 있고 또 균열이 상당히 심하다. 중앙에 높직한 비좌를 마련했는데 4면에는 운문이 있고 상면에는 비신에 맞게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귀부는 짧고 추상적인 동물의 머리로 표현되어 신라 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수는 양측을 비스듬히 자른 오각형으로 4면에 쟁주하는 용이 있고 전면 중앙에 방형으로 깊이 판 제액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문의 자경은 2.3cm, 자수는 2423자이다."

몸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자들이 참으로 정갈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천년이 넘는 세월의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진감선사는 문성왕 12년(850)에 입적했습니다. 문인들을 불러 놓고 "나는 이제 가려한다. 너희들은 일심으로 근본을 삼아 힘써 노력하라. 탑을 만들어 형상을 보존하지 말고 명(銘)으로써 행적을 기록하지도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제자후는 난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을 흠모하는 마음을 어찌 표현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스승의 지엄한



쌍계사 뒤 오두봉 꼭대기에서 있는 진감선사의 부도

당부를 아찔나절의 이슬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진감선사가 입적하고 36년 후에 헌강대왕이 '진감'이라는 시호와 '대공영탑'이라는 탑호를 내려 부도를 모시고 탑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찬하며 이러한 사정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고승의 비문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의 증거입니다.

중무루 지나 금당(金堂)을 향해 계단을 오릅니다. 그러나 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육조정삼탑을 참배하고 싶었지만, 잠긴 문을 열 어달라고 청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호두봉 꼭대기에 있는 진감선사부도(보물 제380호)를 향합니다. 국사암 200m 전방에서 갈림길이 나오고 불일폭

포 가는 길로 접어들어 산모퉁이 두엇을 지나 좁은 길을 버리고 길인 듯 아닌 듯한 비탈을 오릅니다. 100m쯤 올라간 곳에 부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법패를 처음으로 들여와 불교음악의 창시자가 된 진감선사의 부도. 바람이 불면 느끼게 솟아 위를 연출하는 노송 두 그루가 호위하듯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을 찌를 듯 흰찰찬 키의 적송 두 그루가 가지를 안으로 숙여 부도를 덮고 있는 기이한 모습에 놀랍니다. 비나 눈이 와도 부도는 이 소나무로 인해 몸이 찢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도는 단아합니다. 기단에서 상대석에 이르기까지 연꽃무늬가 적절히 배치되어 숭고함을 더했고 비례를 잃지 않은 탑신과 옥개석의 조화가 선사의 풍

모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봉우리에 말없이 서서 저 아래 절에서 울리는 목탁소리 엄복 소리를 다 들으며 천년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말이 필요 없어서,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감선사는 중국 땅에서 구법여행을 다니다가 도의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귀국한 도의 선사는 이 땅에 선문을 열어 말없이 전해 온 부처님의 보배를 별처럼 박아 두었습니다. 진감선사 역시 법패를 들여왔고 선지를 드높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법향을 축내지 않고 있습니다.

진감선사의 부도 앞에 서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2009년 1월 1일 도의선사의 은거도량인 진전사를 찾아가갈 때의 마음과 3년이 지나 진감선사의 도량에서 찬바람을 안고 서 있는 이 마음은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무엇이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진전사에서 쌍계사까지, 70여 사람의 부도발을 쓰다니며 수많은 선지식들을 만났고 그 유혼의 지고한 기상에 홀로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부도발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성성하게 살아 있는 또 다른 설법전임을 외쳤습니다. 부도발을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흠어진 부도와 탑비를 정비하는 몇몇 사찰을 보며 숭구치는 존경심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부도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역대 조사의 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을 외면하면 한국불교의 내일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부도를 '승탑(僧塔)'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법신의 상징물)를 모신 탑은 불탑이고, 스님의 사리를 모신 탑은 승탑이다' 이런 논리인가 봅니다. 거기에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선불교에서 조사는 부처님입니다. 조사들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부처와 조사라는 관념 속의 허상까지 처단해 스스로 부처의 당체를 입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활달한 기상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의 삶을 살다 간 조사를 굳이 '스님'이라는 이름에 예측시켜 승탑이라는 이름을 고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자가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불탑과 승탑을 구분 짓는 그 자체가 탑 위에 탑을 쌓는 일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감성으로 가는 부도발 기행'을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넋두리 해 보는 겁니다.

여기가 종착점은 아닐 것입니다. 꼭 가야 할 곳을 못가기도 했을 것이고 갔어도 눈이 어두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곳도 많을 것입니다. 틈틈이 더 발품을 팔아 이 기행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이 연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독자 제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

글·사진·임연태(사인·본지는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여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쳐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당,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관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드론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사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사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몰래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